



KIEP 기초자료  
19-09

2019년 7월 18일

# 미·중 통상마찰 구도하의 EU의 대중 전략과 시사점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044-414-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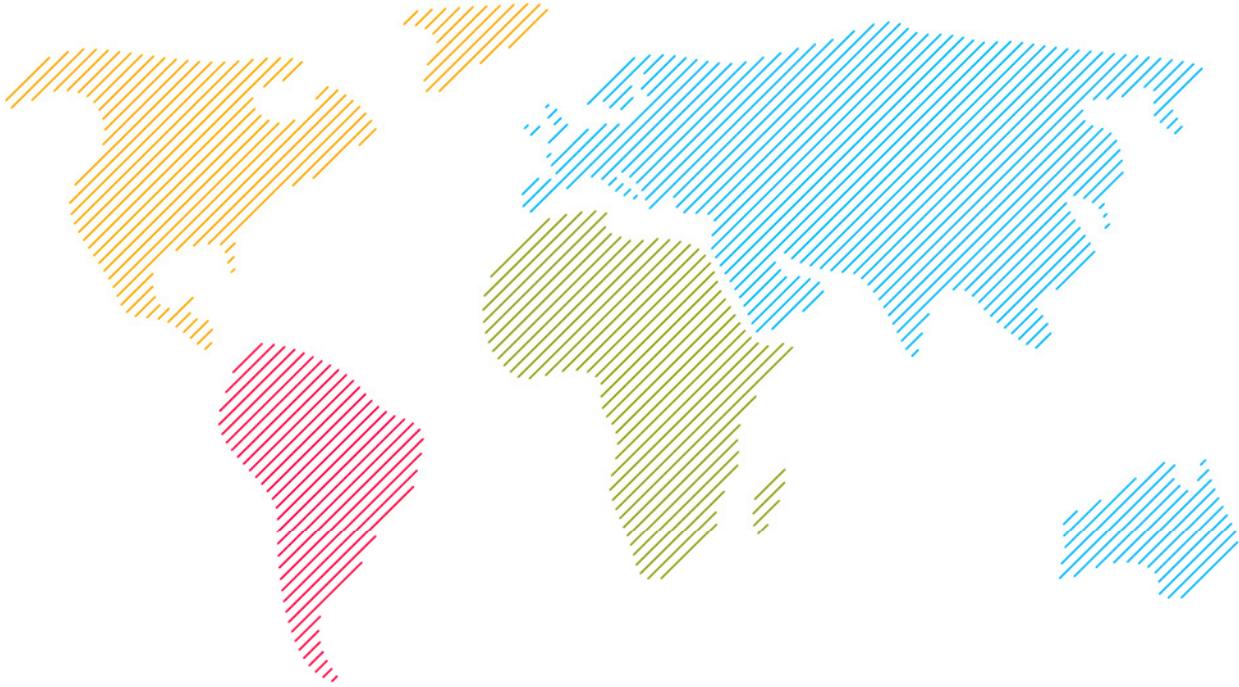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연구원  
(yjljm@kiep.go.kr, 044-414-1064)



## 미·중 통상마찰 구도하의 EU의 대중 전략과 시사점

### 요약

- ▶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EU는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이 실리에 따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반(反)화웨이 연맹에 동참하기를 주장했으나 EU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단, 중국 화웨이에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함.
  - EU는 2019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였고, 4월 제21차 EU·중 정상회담에서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
  -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국의 프랑스 기업 항공기 구매 등 EU 각 회원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는 최근 확대되고 있음.
  -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EU는 △ 역내시장 보호 △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강화 △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용한 중재자 역할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EU는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9년 2월 2일부터 최종적으로 시행함.
- ▶ 미·중 통상마찰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EU가 선택할 수 있는 대중 전략은 ① 다자주의 재건을 통한 중국시장 개방 압력 ② 미국의 대중 압력에 동참함으로써 미·EU 대서양 동맹 회복 ③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임.
  - 상기 3가지 시나리오 중 셋째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혹은 현재의 중립적 입장 고수가 가장 현실적인바, 이에 대한 대비를 비중 있게 준비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현안과제 해결에도 EU의 대중 혹은 대미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EU의 미·중 대결 구도에서의 틈새이익 추구전략은 우리도 미국 및 중국 시장은 물론 EU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통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
  - 미국과 EU가 공통적으로 대중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이슈 중 지재권 보호 강화와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은 우리의 대중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차 례

1. 최근 미·중, 미·EU 및 중·EU 주요 경제 이슈
  - 가. 미·중과 미·EU 경제관계
  - 나. 중·EU 경제관계
2. 미·중 통상마찰 구도하에서 EU의 대중 전략
  - 가. EU의 최근 대중 전략 특징
  - 나. EU의 미·중 갈등국면 대응전략
3.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최근 미·중, 미·EU 및 중·EU 주요 경제 이슈

### 가. 미·중과 미·EU 경제관계

■ [미·중] 2019년 5월 9~10일 제11차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양국의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확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비롯하여 전면전 양상이던 미·중 통상마찰은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휴전과 새로운 협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함.

-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와 화웨이 제재 완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에 자국산 농산물 선구매를 기대하고 있어 여전히 양국 무역협상에 많은 난항이 예상됨.
- 미·중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지난 제11차 무역협상까지 지속되었으나, 정부 보조금과 지적권 보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음.
  - 미국은 중국 측에 △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 국유기업 문제 △ 지적권 및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부분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구조를 무시하고 있고, 기존 기업환경 개선 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함.<sup>1)</sup>
  - 중국은 미국 측에 △ 시장경제지위 부여 △ 대중 수출제한 철회 △ 대미 투자 중국기업에 대한 공정대우 △ 무역구제조치 남용 등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관세 인상(10 → 25%) 조치를 발효했으며, 3,25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5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기업과 미국기업 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상무부에 부여함.
  -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5월 16일 중국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해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함.
- 중국 상무부도 5월 31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기업을 봉쇄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EU] △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에어버스-보잉에 대한 양측의 보복관세 부과 추진 등으로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미·중 분쟁의 장기화 조짐과 함께 미·EU 무역협상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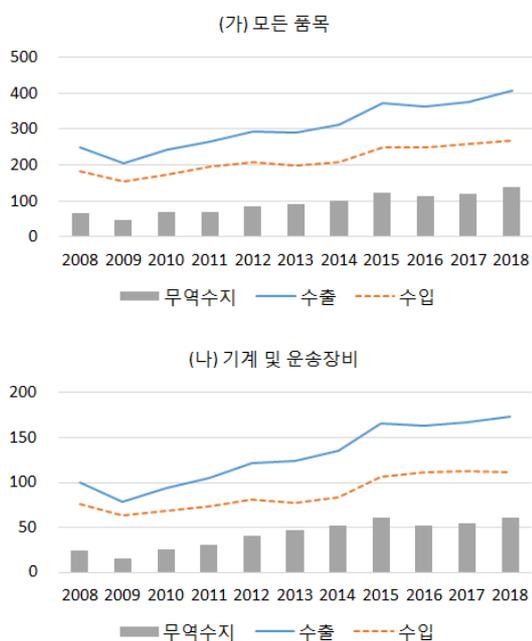
- [농업시장 개방 관련] 미·EU 정상은 2018년 7월 관세감축 협상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EU 농업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EU 측 반대 등의 문제로 협상이 지연됨.

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9. 6. 4), pp. 5~6.

- 미국은 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규제와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sup>2)</sup>
- [자동차 무역 불균형] 미국은 EU와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지적, EU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음.<sup>3)</sup>
- EU의 대미 무역흑자 폭은 1,389억 유로(2018년)이며, 그중 대미 수출의 42.5%를 점하고 있는 기계 및 운송장비의 무역흑자 폭(610억 유로)이 가장 큼.

그림 1. EU의 대(對)미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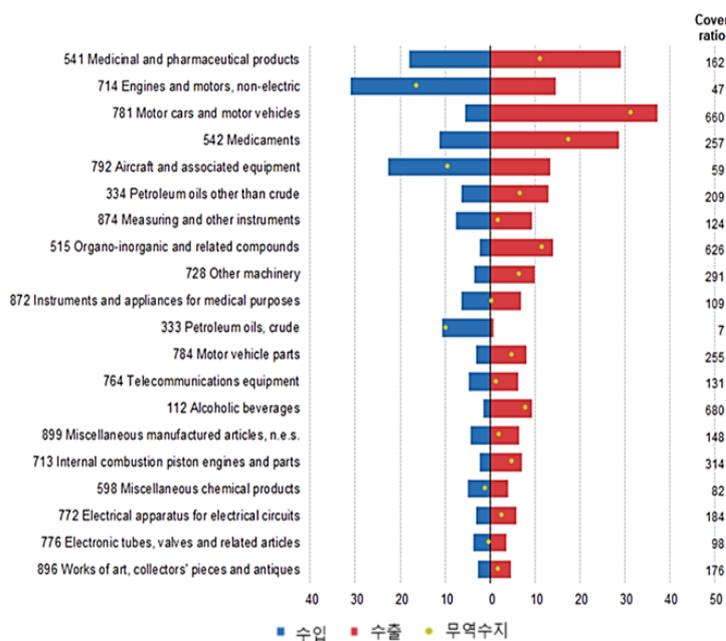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주: SITC 1단위 기준임(기계 및 운송장비는 SITC 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19. 6. 23).

그림 2. EU의 대미 상위 20대 교역 품목

(단위: 10억 유로)



주: 1) 2018년 기준, SITC 3단위 기준 수치.  
2) Cover ratio는 수출 대 수입 비율로 Cover ratio가 660이라 함은 EU의 대미 수출이 대미 수입보다 6배 정도 많음을 의미함.  
자료: Eurostat(2019), "USA-EU -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USA-EU\\_-\\_international\\_trade\\_in\\_goods\\_statistic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USA-EU_-_international_trade_in_goods_statistics)(검색일: 2019. 6. 23).

- [보조금 분쟁] 지난 4월 8일 미국은 프랑스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에 지급한 EU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 1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예비 품목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EU는 17일 미국 항공업체 보잉에 대해 같은 이유로 200억 유로 규모의 관세 부과 예비 품목리스트를 발표함.<sup>4)</sup>

2) 오태현 외(2019), p. 8.

3) 자세한 내용은 오태현 외(2019), pp. 4~7 참고.

4) 오태현 외(2019), pp. 9~12.

- 미·EU의 무역협상은 협상 범위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EU 회원국 내 이해관계 차이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EU는 주요 농업국인 프랑스의 반대 에 따라 농산물 시장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
- EU 회원국 내에서도 대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sup>5)</sup>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음.
- 지난 7월 11일 프랑스 의회는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미국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 프랑스 간 통상 갈등의 악화 가능성이 제기됨.
-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및 프랑스 내 매출액 기준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3% 세율의 디지털세를 OECD 차원의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임.
-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의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슈퍼 301조에 근거한 피해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는 약 1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중·EU 경제관계

-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EU는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간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병행하고 있음.
-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 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sup>6)</sup>
- EU는 중국의 1위 교역상대국이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2위 교역상대국임.
- 양측은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로 협정 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 EU는 지속적으로 △ 중국 내 외국 기업·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 기술이전 강제 금지 등을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진전 없는 논의로 협상타결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4월 9일 중·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2019년 말까지 결정적인 진전(decisive progress)을 이루고 2020년 타결하기로 합의함.
- 한편 EU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역외국 으로부터의 투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규정을 2018년 11월에 도입함.
- 이 규정안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기반시설 및 기술,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취지임.

5) 2018년 기준 독일은 EU 회원국 중 대미 수출액이 가장 큰 국가(1,145억 유로)이며 기계 및 운송장비(독일의 대미 수출액 중 58.7%를 차지)가 주요 수출 품목임.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폭은 660억 유로로, EU 회원국 중 그 폭이 가장 큼(자료: Eurostat DB, 검색일: 2019. 6. 26).

6) 자세한 내용은 이철원 외(2018),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p. 38~41 참고.

■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국의 프랑스 기업 항공기 구매 등 EU의 각 회원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는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4월 9일 중·EU 정상회의 개최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의 주요 회원국을 방문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EU 회원국과 협력을 확대함.
- [이탈리아] 지난 3월 23일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해각서에는 양국간 에너지, 금융, 정보통신, 농업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중국이 중동부유럽을 잇는 철도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북동부 트리에스테항과 북서부 제노바항의 투자 및 개발 관련 협력 등 25억 유로(3조 2,000억 원) 상당의 협력사업 내용이 담겨 있음.<sup>7)</sup>
- [프랑스] 3월 25일 중국과 프랑스 양측은 신재생 에너지, 항공, 식품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총 400억 유로 상당의 경제협력(economic agreements)에 합의함.
  - 프랑스는 중국 내 연안 풍력발전 단지(off-shore wind farm) 개발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등을, 중국은 프랑스 항공업체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 등과 관련된 협력 합의를 체결함.<sup>8)</sup>

## 2. 미·중 통상마찰 구도하에서 EU의 대중 전략

### 가. EU의 최근 대중 전략 특징

■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EU는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의 실리에 따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반(反)화웨이 연맹에 동참하기를 주장했으나 EU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단, 중국 화웨이에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함.<sup>9)</sup>
- EU는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였으며, 4월 제21차 EU·중 정상회담에서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

■ 지난 3월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EU 간 협력과제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임과 동시에 ‘전략적 경쟁자(systemic rival)’로 명시함.<sup>10)</sup>

- EU와 중국은 지난 2003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맺은 이후 2013년 발표된 「EU·중국 2020년 협력을 위한 전략의제 보고서」를 통해 한층 심화된 협력관계를 모색해왔음.<sup>11)</sup>

7)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9. 3. 25).

8) Financial times(2019. 3. 26).

9) European Commission(2019a), p. 5.

10) European Commission(2019b), p. 1.

- 최근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기술의 발전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EU 내에서 이를 경계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관점이 2019년 보고서에서 ‘경쟁자’라는 표현으로 반영됨.
  - 이는 기후변화, 평화, 안보 등 국제적 수준의 공통 관심사에 있어서는 협력을 강조하나, 교역·투자 부문에서는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여 양측간 균형 있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하고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표 1]과 같이 EU 정상회의에 제안함.
  - 행동계획에는 ① 중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촉구 ② 중국의 국유기업 및 국유자본의 EU 시장에 미치는 왜곡효과 경계 ③ EU 회원국 주요 기반시설, 기술, 자산 등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제도’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EU의 대중국 협력부문과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 행동계획

구분		세부 내용
다자주의 지지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의 중국과 협력	Action1	EU와 중국은 인권, 평화와 안보, 개발(UN의 3개의 기둥)과 관련하여 공동의 책임에 동의, 협력 강화
	Action2	기후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는 중국에 2030년 경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이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조기에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
국제평화, 안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	Action3	EU는 중국과 이란에 대한 공동의 포괄적 행동계획 관련 협력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더욱 심화된 관계 구축
	Action4	EU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EU 전략’ 이행과 협력국가(발칸반도, EU 주변국 등)의 안정,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양호한 거버넌스 유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
균형 있고 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성취	Action5	EU는 중국에 기존 EU·중국 공동성명 이행 촉구: ① 보조금과 강제 기술이전 관련 WTO 개정 약속 이행 ② 2020년까지 양자투자협정 체결 ③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항공안전 양자협정의 조속한 마무리
	Action6	조달시장 접근분야에서 제3국과의 보다 많은 호혜성 확보 및 조달시장 개방을 위해 EU는 중국에 2019년 말까지 국제조달 시스템(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GPA 채택 촉구
EU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경쟁 보장	Action7	EU 집행위원회는 EU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 입찰자(bidder)와 외국 상품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을 비롯하여 보안, 노동 및 환경 기준,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2019년 말까지 마련
	Action8	EU 역내 해외 국유기업과 정부보조금의 왜곡효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2019년 말까지 현 EU법에 반영할 방안 마련
주요 기반시설 및 기술 보호 강화	Action9	중요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잠재적으로 위협한 보안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공동의 EU 접근법 마련 필요
	Action10	주요 자산, 기술,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인한 안보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EU 회원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제도 규정(Regulation)을 빠르고 완전하게 이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b), p. 11.

- 지난 2019년 4월 9일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중국은 △ 시장개방 확대 △ 기술이전 강요 금지 △ WTO 개혁 협력 △ WTO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EU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함.<sup>12)</sup>
- 본 성명서는 EU 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중국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중 협력사안을 대부분 반영함.
  - 협상이 진행 중인 중·EU 포괄적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양측은 EU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 시장 진입 확대 △ 외국 기업·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 투자보호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2019년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합의했으며, 2020년까지 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함.
- 본 성명서에는 우선적으로 기존 EU와 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번영·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다자주의 및 국제법을 준수하자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양측은 최근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에 대해 WTO 중심의 규칙기반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공동대응하는 데 합의함.
- 중국은 시장개방과 EU 기업에 대한 차별금지를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sup>13)</sup>
- 또한 중국 측은 일대일로와 EU의 유럽-아시아 연결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EU와 공동협력을 약속함.

## 나. EU의 미·중 갈등국면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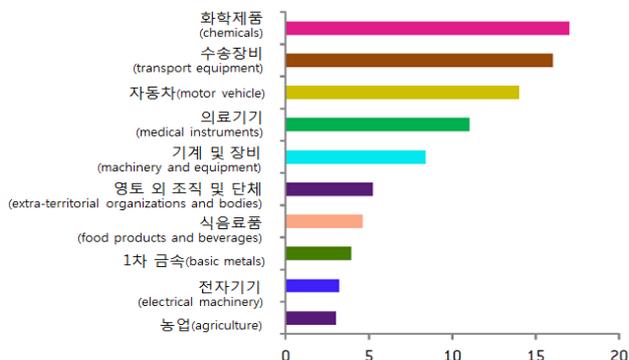
- EU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입장은 장기적으로 EU의 이익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발생할 미·중 시장에서의 양국 상품 공백을 EU 제품이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시장에서의 EU 제품 점유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중국이 미국과 EU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10대 품목(ISIC 2단위 기준) 중 8개 품목(화학, 수송장비, 자동차, 의료기기 등)이 일치하기 때문에 EU가 중국 내 미국산 상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12) EEAS(2019. 4. 10), “Joint Statement of the 21st EU-China summit,” [https://eeas.europa.eu/delegations/china\\_en/60836/Joint%statement%20of%20the%2021st%20EU-China%20summit](https://eeas.europa.eu/delegations/china_en/60836/Joint%statement%20of%20the%2021st%20EU-China%20summit)(검색일: 2019. 6. 26).

13) DW(2019. 4. 9), <https://www.dw.com/en/eu-announces-breakthrough-on-trade-with-china/a-48269078>(검색일: 2019. 6. 24).

그림 3. 중국의 대미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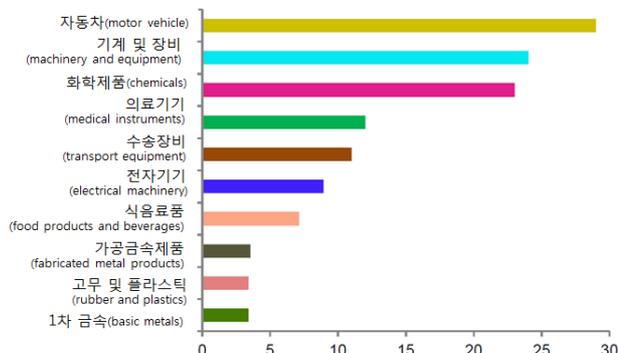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

자료: Herro(2019), p. 8.

그림 4. 중국의 대EU5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10억 달러)



주: 2016년 기준.

자료: Herro(2019), p. 8.

- 지난 2018년 6~8월 사이에 미·중 간 관세부과 계획<sup>14)</sup>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EU는 미국시장에서 일반 기계류 품목에서 최대 이익을, 중국시장에서 항공기 및 우주 관련 품목, 의료 및 정밀 제품에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sup>15)</sup>

- EU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미국시장에서 390억~976억 달러의 잠재적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300억~385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EU는 △ 역내시장 보호 △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강화 △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활용한 중재자 역할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EU는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9년 2월 2일부터 최종적으로 시행함.

- 미국의 해당 품목 수입규제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인도, 중국, 터키, 러시아산 제품이 EU로 유입되어 역내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함.
- EU는 잠정조치에서는 23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불문하고 선착순 방식의 쿼터제를 적용했으나 최종적으로 26개 품목에 대해 국별·선착순 쿼터제를 분리하여 적용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주로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중요시했던 EU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sup>16)</sup>

14) 2018년 6월 미국은 중국에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리스트를, 중국은 이에 500억 달러의 보복관세 리스트를 발표함. 이후 7월 미국은 2,0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중국은 8월 미국에 대해 600억 달러 보복관세를 발표함.

15) Herro(2019), pp. 9-11.

16) 2017년 기준 EU의 역외무역 중 32%가 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짐. EU는 향후 무역협정 확대를 역내기업들이 더 큰 시장에서 관세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함. 역외 국가와의 무역으로 유럽 내 3,10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됐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7분의 1 수준임(European Commission(2019d), "Report on Implementation of EU Free Trade Agreements(2017. 1. 1~12. 31),"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october/tradoc\\_157468.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october/tradoc_157468.pdf) 및 해당보고서의 European Commission(2019c), "Factsheet on the report,"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october/tradoc\\_157469.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october/tradoc_157469.pdf) 참고.

- 최근 발표된 EU·일본 자유무역협정(EPA, 2019년 2월 발효)과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 2017년 9월 발효),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후 EU는 양자 무역협정에 중점을 두고 호주, 메르코수르 등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sup>17)</sup>
- 또한 EU는 WTO 개혁 논의와 함께 다자적 무역체제 재건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3. 전망 및 시사점

- 미·중 통상마찰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EU가 선택할 수 있는 대중 전략은 ① 다자주의 재건을 통한 중국시장 개방 압력 ② 미국의 대중 압력에의 동참으로 미·EU 대서양 동맹 회복 ③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임.
- 첫째,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중시해왔던 EU가 이번에도 WTO 개혁을 비롯한 다자주의 재건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한 자국 시장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전략임.
  - 범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의해 생산의 국제 분업화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양자적 FTA 혹은 무역협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한바, 다자적 공통 규범 구축 및 강화가 더욱 절실함.
  - 하지만 WTO DDA의 지연 및 실패와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이 통상관계에서 다자적 협상체계보다는 양자주의를 선호하면서 EU만의 노력으로 다자주의를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임.<sup>18)</sup>
- 둘째, 최근 중국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 중국 정부보조금, 국유기업, 지재권 및 기술이전 등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결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조를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멈춰선 미·EU 대서양 동맹을 회복한다는 전략임.
  - 중국의 정부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지재권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해 EU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미·EU 동조를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상기 전략의 핵심임.
  - 그러나 미국의 양자협상 우선주의와 함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라는 화살이 중국과 함께 EU 측도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대서양 동맹의 회복 가능성도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 셋째, 최근 EU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와 유사하게 사안별로 혹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중 대결 구도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틈새이익을 추구한다는 전략임.
  - 미·중 관계에서 EU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만 견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개방이 전망되는 대규모 중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 또한 미·중 통상마찰로 양국간 관세장벽이 높아져 EU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개선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4분기 EU의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음.<sup>19)</sup>

17) 최근 EU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메르코수르, 멕시코, 칠레 등임.

18) Herrero(2019), pp.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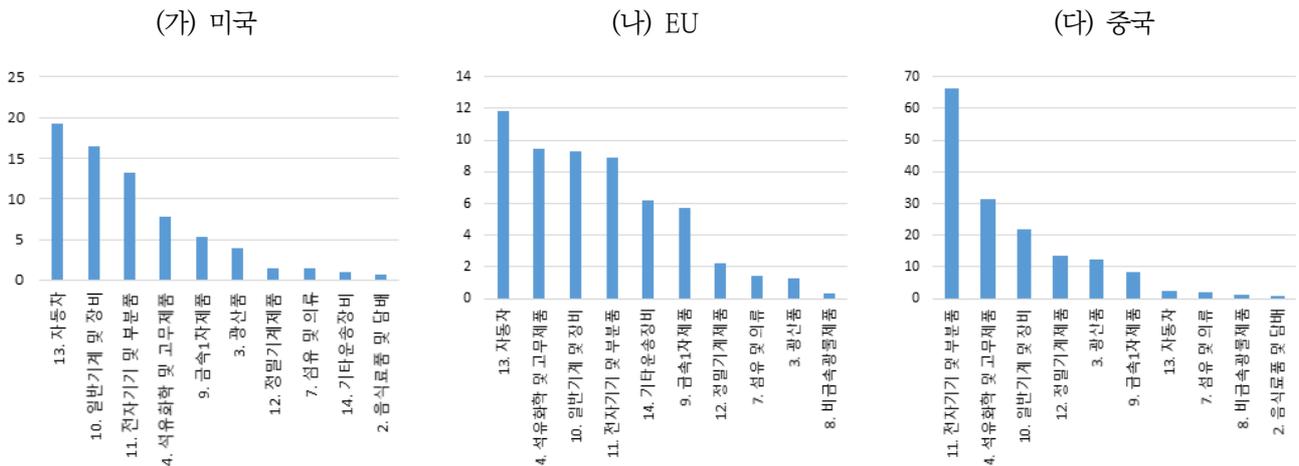
19)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9. 6. 19), p. 2.

■ 향후 EU가 대중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기 3가지 시나리오 중 셋째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혹은 중립적 입장 고수가 가장 현실적인바, 이에 대한 대비를 비중 있게 준비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현안과제 해결에도 EU의 대중 혹은 대미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EU는 중국과 사안별로 협력을 강화하거나 미·중 갈등에서 '화웨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지재권 보호 및 시장개방 관련해서는 대중 압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EU의 미·중 대결 구도에서의 틈새이익 추구전략은 우리도 미국과 중국 시장은 물론 EU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통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EU에 대한 주요 수출품 구조는 [그림 3, 4]와 절반 이상이 일치하는바, 미·중은 물론 미·EU 혹은 중·EU 통상마찰 구도하에서 우리의 틈새전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또한 미·중 통상마찰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중심의 우리 기업 GVC를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미·EU 혹은 중·EU 통상마찰 흐름에 따라 유럽과 동북아 등에 구축된 우리 기업의 GVC 활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과 EU가 공통적으로 대중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이슈 중 지재권 보호 강화와 공공조달시장 개방 등은 우리의 대중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특히 공공조달시장은 한·중 FTA에서도 중국 측의 요구로 제외된 바 있는 분야로 중국의 거대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인접한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구체적인 개방 가능성 분석과 유망부문 검토 등,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KIEP**

그림 5. 2018년 한국의 미·EU·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단위: 10억 달러)



주: ISIC 2단위 기준 분류.

자료: KITA 무역통계 DB(검색일: 2019. 6.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오탈현, 임지운. 2019.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19호.
- 이철원, 나수엽, 임유진. 2018.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연구자료 18-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9. 「최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진전 사항 및 현지 반응」. 『동향분석』. (6월 4일)

### [영문자료]

- BBC. 2019.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over IT threats.” (May 15)
- DW. 2019. “EU announces 'breakthrough' on trade with China.” (April 9). <https://www.dw.com/en/eu-announces-breakthrough-on-trade-with-china/a-48269078>(검색일: 2019. 6. 24).
- EEAS. 2019. “Joint Statement of the 21st EU-China summit.” (April. 10). [https://eeas.europa.eu/delegations/china\\_en/60836/Joint%20statement%20of%20the%2021st%20EU-China%20summit](https://eeas.europa.eu/delegations/china_en/60836/Joint%20statement%20of%20the%2021st%20EU-China%20summit)(검색일: 2019. 6. 26).
- European Commission. 2013.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 (November 23)
- \_\_\_\_\_. 2019a. “Cybersecurity of 5G networks.” (March 26)
- \_\_\_\_\_. 2019b. “EU-China-A strategic outlook.” (March 12)
- \_\_\_\_\_. 2019c. “Factsheet on the report.”
- \_\_\_\_\_. 2019d. “Report on Implementation of EU Free Trade Agreements(2017. 1. 1~12. 31).”
- Herrero Alicia Garcia. 2019. “Europe in the midst of China-US strategic economic competition: what are the European Union’s Option?” Working paper issue 3 Bruegel. (April 8)
-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2019. “Italy-China agreement will be largely symbolic for now.” (March 25)
- \_\_\_\_\_. 2019. 6. 19. “Outlook for a future EU-US trade agreement is poor.” (January 19)

### [통계]

- Eurostat DB.
- KITA 무역통계 DB.